

# 현자타임 생운 모의고사



## <정답표>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답	⑤	④	③	④	⑤	④	⑤	②	②	①	①	⑤	①	③	③	③	①	④	④	②

## <해설>

### 1번.

정답 해설:

5번: 실천 규범 윤리학이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오답 해설:

1. 규범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에 대해 제기 할 수 있는 비판이다.
2. 기술 윤리학에 대한 비판이다.
3. 규범윤리학이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에 대해 제기 할 수 있는 비판이다.
4. 메타윤리학이 규범윤리학,기술 윤리학에 대해 제기 할 수 있는 비판이다.

### 2번. -제시문 해설

갑과 을은 둘 다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갑은 낙태를 허용하는 논거로 소유권 논거, 평등권 논거를 들었고

\* 소유권 논거 :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며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논거

\*평등권 논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낙태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한다는 논거

을은 낙태를 허용하는 논거로 정당방위권 논거를 들었지만,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며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논거,와 평등권 논거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 정당방위권 논거: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는 논거

<낙태 허용> 소생자 평정프

쟁점1 A. 갑,을 모두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쟁점2 B. 하지만 갑은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라고 보는 반면 을은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쟁점3 C. 갑,을 모두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남성에 비해서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고 본다.  
(임신으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불편함과 불공적 대우)

쟁점4 D. 하지만, 갑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낙태가 허용되어야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낙태가 쉽게 허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불리함은 낙태가 아닌, 정부 정책과 사회적 합의로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선지 해설

1. 갑, 을 모두 다 부정할 질문이다. 갑, 을은 낙태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2.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할 질문이다. 을은 성폭행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의 낙태에 대해서만 찬성한다.
3. 갑, 을 모두 다 부정할 질문이다. 갑은 낙태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존엄성에 우선한다고 보며, 을은 여성의 정당방위 권리가 태아의 존엄성에 우선한다고 본다.
4. **갑, 을 모두 다 동의할 질문이다. 갑, 을 모두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할 질문이다. 갑은 평등권을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아닌 정부 정책,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 3번. -제시문 해설

정답:

**3. 에리히 프롬은, '상대방의 사회적 조건'들을 따지며 마치 쇼팽을 하듯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현대 사회의 잘못된 '사랑'을 비판하였다.**

오답:

1.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 '이해'에 해당한다.
2.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 '책임'에 해당한다.
4.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 '보호'에 해당한다..
5.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 '존경'(존중, 리스펙트)에 해당한다.

### 4번. 답 4번. -보기 해설

ㄷ. 제시문에서는 부패(반칙)을 제재로 척결하려 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가)의 관점에서 부패(반칙)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시민들의 자율적 규범의 내면화)

그리고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 5번. -제시문 해설

가: 유교, 나: 도교.

정답 선지 해설

5. 유교는 도덕천의 도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사는 존재를 곧 이상적인 존재, 성인으로 보았고 도교는 자연천의 자연스러운 도에 따라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존재를 곧 이상적인 존재, 진인으로 보았다.

오답 선지 해설:

- 1.(나)도교 가 지향하는 삶이다.
2. 유교에 해당하는 선지이다. 이번 9평의 정답선지였던 1번 선지와 동일한 의미이다. '가'는 만물이 지닌 생명력을 천도(天道)의 도덕적 표현으로 본다.' 알아두자.
3. (나)도교 가 지향하는 삶이다.
4. 불교가 지향하는 삶이다.

### 6번. 답 4번 -선지 해설

ㄱ.O

니부어는 개인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양심이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ㄴ.O 니부어는 이성은 욕망을 제한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ㄷ.O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강제력으로 정의를 달성할 수 있으나, 니부어의 궁극적, 이상적 지향점은 사회적 제력은 최소한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양심의 함양을 통한 합의에 따라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르. X 니부어는 '도덕성에 바탕을 둔' 정치적 방법만이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7번. 답 5번 -제시문 해설

갑은 언론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갑에 따르면 언론은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명을 갖는다. 또한 시민들은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받을 알 권리를 지닌다.

을은 언론의 자율성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인,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고려하는 입장이다. 을에 따르면,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자율성을 남용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8번. -선지 해설

2번: 직업적 성공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증표(표시)는 될 수 있으나, 직업적 성공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1. 갑은 신분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갑은 능력에 따라, 을은 하나님이 정해진 것에 따라 직업을 갖어야한다고 본다.
  4.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칼뱅은 직업 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강조한다.
  5. 갑과 을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 순자는 예에 따라, 을은 청교도 윤리에 따라.

## 9번. 답2번 -제시문 해설

을: CL(Copy Left) Only

갑: CL(공익 목적) + but CR(copy right) 인정 : 사익을 위한 정보 복제 사용은 X, 저작자 저작권 부분 인정.

쟁점 1: OO 공익을 위한 정보의 공유, 복제는 갑과 을 모두 동의한다.

쟁점 2: OX 그러나 갑은 사익을 위한 정보의 공유에 동의하는 반면, 을은 사익을 위한 정보 공유는 제한되

어야한다고 본다.

선지 2번: 을은 공익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반면, 사익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선지 3번: 실제 한국에서도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보며, 사익을 위한 정보 복제는 금지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는 허락한다.

## 10번. 답1번 -제시문 해설

해설

- ㄱ. O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되며, 이것은 인간의 의무라고 보았다.(칸트 계승)
- ㄴ. O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을 도덕적 행위 주체로 보며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 ㄷ. X 병은 생태윤리학자 레오폴트이다. 그는 인간의 직접적인 의무는 생명체를 넘어서 지구 생태계 내 모든 존재(무생물 포함)를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ㄹ. X 갑, 을, 병 모두에게 적절한 선지이다.

## 11번.답1번 -제시문 해설

제사를 지내는 제례에 대한 제시문이다.

선지

1. 제례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강조한다.
2. 혼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 관례 중 자관자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4. 상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상례는 돌아가신 분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의식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5. 제례와 상관없는 선지이다.

## 12번.답5번 -제시문 해설

갑의 입장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분리된다는 입장이다.

분리론에 따르면 과학과 종교의 영역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에 원리상 과학이 종교를 도전하지도 종교가 과학을 규제할 수도 없다. 현대사회에선 정교분리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지만, 과학과 종교를 단지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얻어냈다는 한계가 있다. (위키 백과)

을의 입장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제거 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제거론은 과학과 종교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상대 분야를 적극적으로 배격하려는 행동이다. 대표적으로 과거 근세 유럽에서 벌어졌던 종교재판이나 현대에 벌어지는 진화론과 창조론간의 법정 분쟁이 그 사례이다. 갈릴레오는 기존 기독교 교회가 지지하고 있던 천동설 우주 구조에 위배되는 많은 사실들을 발견하여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강력히 옹호했다. 교회 당국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이 기독교의 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믿어 금지령을 내렸고, 지동설 지지자들을 종교 재판으로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 독해: 종교는 믿음으로써 사실들을 검증하려고하고, 과학은 사실으로써 또 다른 사실을 검증하려하는 대립적 관계에 서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며 서로를 적극적으로 배격하려는 관계입니다.

-->

종교는 믿음으로써 '사실'들을 검증하려 한다. 라는 말은 종교가 믿음(신앙)적인 요소를 '사실'=fact=과학적 영역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말이다.

예컨데, 종교의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치장하여 과학이론인 것처럼 만들고, 과학의 생물학, 진화론에 대해 종교적 잣대를 대는 것이다.

한편,

과학은 사실으로써 또 다른 사실을 검증하려 한다. 라는 말은 과학이 사실(fact)적인 요소를 '또 다른 사실'=믿음=신앙 적인 요소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말이다.

예컨데, 과학적인 연대 측정 방식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n십억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종교인들이 믿는 지구의 나이(몇만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5. 같은 과학이 가치 중립적인 영역을 다룬다고 본다. 하지만 종교는 의미와 가치를 다루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을은 과학이 종교를 배격하려한다며, 과학의 가

치 개입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물론 을 또한 종교의 가치 개입적 역할을 인정한다.

이건 이번 9평 (을)에 해당하는 입장임.

과학과 종교가 서로 친화적이라는 입장이다.

종교 경전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자연 현상의 원인을 종교에 두려는 등, 과학과 종교는 동일한 실재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이라는 믿음 하에 둘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 교리와 과학적 방법론은 여러 방식으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위키 백과)

종교와 과학은 모두 인류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과학의 건전한 발전은 참된 종교적 삶을 방해하지 않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은 근본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학생 백과)

## 13번.답1번 -제시문 해설

같은 노직이다. 을은 롤즈이다.

자세한 설명은 9평 해설지를 참고하라.

- 선지 해설

- 1.노직은 재화를 사회적 약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보았다.
2. 롤즈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개인들이 합의한 원칙들은 모든 개인들이 동의할 만큼 정의롭고 공정하다. 따라서 차등에 원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일반인, 부자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부당한 역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다.
3. 롤즈도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세금을 걷는다고 그것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 롤즈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속에서 개인들이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하는 것은 자신이 최악(최소수혜자)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하여, 위험을 회피하고자하는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차등의 원칙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세워진 근거는 개인의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이다.

5. 갑의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갑의 정의의 원칙은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재화를 스스로의 힘으로 벌었다면, 정부가 그것을 세금 등으로 빼앗아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이다.

### 14번.답3번 -제시문 해설

제시문의 사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답: 3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할 말이다.

- 오답: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할 말이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에 할 수 있는 말이다.

### 15번.답3번 -보기 해설

- ㄱ. X 정치 권력의 주권은 민주주의에서는 피치자인 국민에게 있고, 민본주의에서는 왕에게 있다.
- ㄴ. X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주권을 대행하는 대표자를 교체한다. 주권자는 언제나 국민이다.
- ㄷ. O 민본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 ㄹ. O 민본주의에서 국민은 피치자이며, 동시에 나라의 근본이다.

### 16번.답3번 -선지 해설

1. 죽으면 윤회를 한다는 것은 불교의 죽음관이다.
2. 사람이 죽으면 낮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간다고 보는 것은 유교(성리학)적 죽음관이다.
3. 삶과 죽음에 차별이 없고,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장자, 도교의 죽음관이다.

4. 기독교(천주교)의 죽음관이다.
5.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다.

### 17번.답1번 -제시문 해설

갑: only 미 / 을: 미 + 도덕  
 갑은 절대적 심미주의(aestheticism)의 입장이다. 을은 온건한 도덕주의의 관점으로, 심미주의와 도덕주의를 절충한 절충적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예술은 심미적 가치를 위한 것이지만, 일부 예술은 도덕적인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도덕적 가치를 감상자가 인정한다면, 그러한 도덕적 가치가 작품의 미적 가치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본다.

절대적 도덕주의, 절대적 심미주의와 같은 극단론은 수많은 반례가 존재하며, 모든 예술을 포괄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절충주의적 입장인 온건한 도덕주의의 관점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설득력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9평에서는 이런식의 절충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므로, 비록 개념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넣어봤다.(사실 9평에 나온 절충론들은 모두 새로운 패턴이 아닌가? 따라서, 예술의 입장에서의 절충론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 해설:
- ㄱ. 갑은 절대적 심미주의의 입장으로 예술은 오로지 예술 자체만을 위해 봉사해야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심미주의적 입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일부 예술품은 도덕성과 합치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덕성과 어긋나거나, 도덕성과 무관한 작품들에 대해서 그 자체로 심미주의적 가치가 있음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 ㄷ. 위와 같은 이유로 틀린 선지이다.
  - ㄹ. 갑은 예술의 독립성을 지향하나, 을은 예술의 사회성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을의 관점에서는 분명 예술을 위한 예술, 즉 독립성이 강조된 예술 또한 인정되기 때문이다.

## 18번.답4번 -정답 선지 해설

4. 칸트는 영구적인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세계시민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해설

1. 칸트는 단일한 세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2. 칸트는 국가 간의 갈등의 원인을 잘못된 제도,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보았다. 국제 기구, 국제법, 국제규범 등을 통해 각 국가 간의 제도를 바로잡고, 대화를 통한 중재를 한다면,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3. 칸트는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공화정 체제인 자유로운 나라들이 서로 연방 단계에서 연합하여,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았다.
5. 세계시민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우호란, 각국의 시민들이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하며, 보편적인 세계의 시민으로서 서로 우호를 다지는 것을 말한다.

## 19번.답4번 -정답선지 해설

4. 모든 인류의 복지 증진을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롤즈가 아닌 싱어의 입장이다. 롤즈는 해당 국가가 질서정연한 상태가 된다면 비록 해당 국가의 개인들이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원조는 끝났다고 본다.

- 오답 선지 해설

1. 피터 싱어는 동등한 이익 고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터 싱어는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여 모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2. 롤즈는 국제주의, 세계시민적인 관점에서 고통 받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3. 싱어는 해외 원조를 개인적 차원에서 할 것을 강조하지만, 롤즈는 해외 원조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할 것을 강조한다. (싱어도 국가도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갑과 을 모두 해외 원조를 자선이 아닌 의무로 보았다.

다만 그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싱어는 개인(+국가)

->후진국 국민 개개인

롤즈는 국가->국가 로 보았다는 차이가 있다.

## 20번.답2번 -제시문 해설

A는 엘리아데의 성현의 개념이다

답 2번. 성현은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고, 인간은 그러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오답 선지 해설

1. 유교의 성인과 현인을 통칭해서 부르는 성현을 의미한다.
3. 종교와 과학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4. 성현은 종교적 권위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
5. 초자연적 진리 예컨대 성스러움, 자연적 진리 예컨대 과학을 서로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다.